

종교간 대화없이 세계평화 없다

한국 기독교와 신도들의 신앙 행태를 비판한 <예수는 없다>(현암사)를 쓴 캐나다 교포 종교학자 오강남(60·리자이나대) 교수가 이번엔 탁날한 스님의 설법집 <귀향>(Gong Home)>(오색)을 우리말로 옮겼다. 안식년을 맞아 한 학기 동안 서울대와 서강대 대학원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한 오 교수를 만났다.

"귀향은 각자가 속한 종교에 깊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자기 종교 전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요. 이 책에서 탁날한 스님이 강조하는 것도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탁날한 설법집 '귀향' 오강남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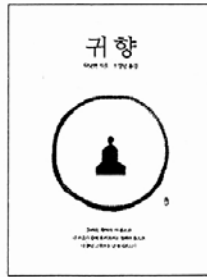
오 교수가 탁날한 스님의 책을 번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내놓은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이어 두 번째.

"탁날한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 정의하고, 두 종교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더욱 아름다운 '길벗'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염원하는 마음에서 번역하게 됐습니다."

타종교 닫힌 눈·귀 열어 함께 니은 세상 만들기

<귀향>은 탁날한 스님이 이 시대의 상처, 곧 우리 자신들의 영적 소외를 상태를 다루고 있다.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이어가는 후속편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세계 평화는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의 평화는 종교 간의 대화 없이 불가능하다"는 신학자 한스켄의 말을 예로 들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다. 미주불교법사회(회장 강영기) 주최로 지난달 25일 동국로일대에서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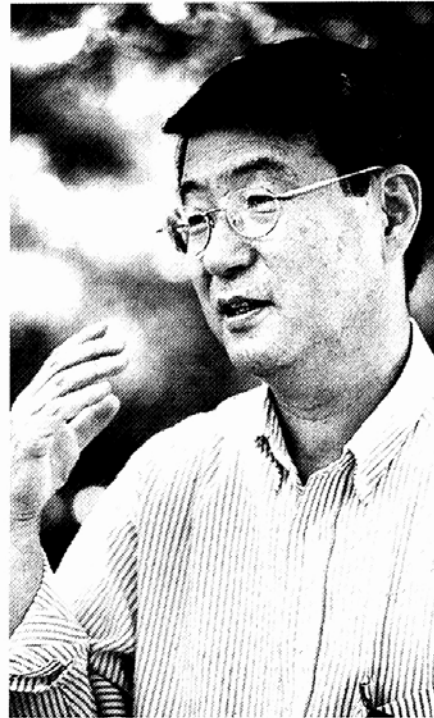


강연회에서도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기독교는 불교와의 만남에 의해 일방적인 신관, 유일신관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어요. 또 변화기 시작한 것은 믿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깨침을 강조하는 불교를 통해 기독교도 깨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교, 기독교는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배워 자기 종교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 교수는 종교 간의 대화에 앞서 '내 종교만'이라는 만민주의(근본주의)를 버릴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만민주의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지만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사찰 방화 등의 훼손 사건도 바로 이런 만민주의의 대표적 산물이란 것이 오 교수의 지적이다.

<예수는 없다>가 근본주의, 즉 막이나 관념이나 개념에 매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책이라면, <귀향>은 다른 종교에 대해 눈과 귀를 닫아버린 한국 종교인들에게 오 교수가 권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오 교수는 화염의 법계연구를 연구한 <화염사상의 연구>란 논문으로 학위를 받을 정도로 불교학에도 조예가 깊다.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대학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선불교



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그는, 학위 논문을 토대로 일반인들을 위한 화염사상서 출간의 원도 세웠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종교인은 어떠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웃종교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a.com

맑은 정신 깨우는 선의 정수

'선림승보전' 원철 스님 역

"내가 스승의 회상에서 공부할 때 스승께서 죽비를 들고 귀성이라는 당나귀 같은 놈에게 묻는 것을 보았다.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난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귀성이 가까이 오더니 죽비를 빼앗아 땅에서 먼지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스승께서는 "논인 놈아" 라고 하였다. 그때 귀성은 깨달았다고 한다.

신간 <선림승보전>(하권 장경각)은 광해 원전선사(951~1036)가 대중에서 설한 선 법문으로 시작된다. 선림승보전은 제목이 말하듯이 선림에서 보물이라고 할 만한 선승들의 깨달음의 기원, 법문, 찬 등이 수록된 선종사서의 정수로 꼽히는 책이다. 수록된 선승들은 중국 조사선의 활화산이었던 송대를 살다간 선사들. 지난 99권 출간한 상권이 선림승보전 15권까지 번역했고, 이번에 출간된 하권은 16권 '광해 원전선사'부터 30권 '항홍불수유형선사'까지 번역한 것이다. 옮기는 원전연한 및 경전번역을 하고 있는 원철 스님.

선사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가운데 지엄들은 모두 버리고 정심만을 모아 놓은 이 책은 맑은 정신을 되찾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현실 직시하면 깨달음 온다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손혜석 지음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지만, 삶에 대한 불안과 의심은 오히려 커져만 간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이정표를 찾아 헤매는 때가 많다. 최근 들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상의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명상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출판가에도 갖가지 명상서들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책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명상법인 위빠사나 관련서들이다.

신간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아름드리 미디어)은 위빠사나 명상 초심자들을 위한 명상 수련 지침서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아로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수행요론	박 현 이	바 나 리
2	거울	원 성 이	레
3	발심삼론	탄 히 교	림
4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5	유식학 강좌	고 목 삼	양
6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목	효 림
7	만행-허버트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교 림 원
8	깨달음의 꽃1	하 춘 생	여 래
9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10	오케이이야기	일 타	효 림

도서 안내: (02)737-0895

연기사상으로 본 현대과학

'카오스와 불교' 김용운 지음



카오스 이론과 불교 사상을 연구해 김용운(한양대 수학과) 교수가 내놓은 <카오스와 불교>(사 이인스북스)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사상과 현대 과학으로 이어지는 서양철학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천천히 다룬다.

이 책에 흐르고 있는 불교의 사상은 모든 현상에는 본질이 없다는 제법무상(諸法無我)의 철학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카오스와 불교는 한결같이 모든 현상은 원인인 인(因)과 조건인 연(緣)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하며,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연기론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불교에서 바라본 과학 세계를 다루면서 틈틈이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사에 대한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침도 던져준다. 가령 어느 부분을 잘라내도 전체 모양과 닮은 프랙털 도형이나 코흐곡선을 설명하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의 의미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총중력 밀도에 있으며 그 시간을 위해 전 인생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학과 문명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인간과 자연' 공생 위한 성찰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구승희 지음

자연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존의 토대로서 인간과 공생의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망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자연의 인간'이 아닌 '인간의 자연'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를 연구해 온 구승희(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교수가 내놓은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동국대 출판부)는 인간의 자연관에 대한 변천사를 탐구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모색한다.

크게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로 구성된 이 책은, 자연에 대한 철학적 탐색의 역사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대의 자

연관에서부터 근세 이후의 자연 이해 방식의 변천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메레이 복친과 사회생태론, 그리고 지은이가 주장하는 에코아나키즘, 에너지 위기 시대의 철학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은이는 에코아나키즘에서, 생태위기는 20세기 문명이 남긴 가장 큰 상처라고 진단하고, 에코토피아를 향한 에코아나키즘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휴머니즘의 원칙과 희망의 원칙 그리고 욕망의 원칙에서 필요한 원칙에로의 전화가 바로 그것이다.

'환경윤리'에서는 생태주의, 환경주의, 환경관리주의 등 환경윤리학의 문제 영역



을 세분화하여 탐구한다.

독자들은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라는 책의 제목에 가우뚱할지도 모른다. 윤리는 철학에 있는데 독자적인

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일 것이다. 책의 제목은 지은이가 주장해 온 생태철학과 환경윤리의 영역구분과 관련이 있다. 지은이는 들머리에서 '자연에 관한 철학, 생명유지체계로서의 생태계 전반에 관한 철학적 반성을 시도하는 영역을 생태철학, 그리고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 등 인간의 대자연 활동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처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영역을 환경윤리다' 설명했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영가천도와 49재



49재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7일째마다 일곱 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죽은 이의 명복을 기원하는 천도의 식이다. 그래서 '칠칠일', '칠칠재'라고도 한다.

신간 <영가천도와 49재>(민족사는 불교에서 영가(죽은 이)를 위하여 영혼을 천도하고 49재를 지내는 이유와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49재를 지내는 이유는 영가가 속히 고통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 즉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죽음 이후 세계 왜 두려워 하나

이나 친지들은 영가를 위하여 부처님께 축원하고 또 보시를 통하여 명복을 기원하는 것은 망자를 위한 진리의 만찬이라는 것이다.

또한 책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영가가 새로운 생명을 받기까지의 49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티베트사의 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고, 한글대장경 <제법집요경>에 수록된 '지옥품'의 내용도 실었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서아시아문 집계 연속 1위의 화제의 신간!

이 시대 수행자들이 들려주는

나의 행자시절

푹푹했던 초발심의 행자시절을 거치며 묵묵히 출가의 길을 걷고 있는 45인의 스님들 이야기!

고통 광우 도견 도법 도윤 통광 명교 무관 범룡 범홍 보경 보광 불굴 상륜 석주 선용 송암 송철 영진 윤경 원담 원소 원타 원택 월운 용각 이두 인목 인환 일면 일진 장일 종립 종성 지명 진월 천운 탄성 통광 헤거 해광 해남 해담 효립 효명

편안함과 쉬운 길만은 가려 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수행의 길을 제시한 맨짜한 '시집살이' 이야기!

월간 <예인> 기자 박원자 엮음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

- 우리나라 절안의 생활 모습과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해설한 불자 필독서!
- 불교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독송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의 원문과 해석을 실은 불교 입문서!



다함미디어 TEL 02) 528-0126/7
각권 값 8,000원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티베트 불교, 현장 속으로!

특집 I 티베트 불교, 그 현장을 가다

- 탈방기 인과 믿으며 미래 기다린다 / 독립의 그날까지 비폭력으로 / 모든 사람 사랑하면 부처님 원대요
- 달라이 라마 스님과의 일문일답
- 우리가 티베트 돕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

특집 II 교단내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

- 권두말씀 전사법 개정안, 정부 예측강화도 대국민 고립 자초
- 특별기고 10.27법난을 기억하십니까?
- 특별기고 불교종교인종교의 새로운 맥락과 실천
- 교계초점 - 사면복권
- 특별기고 특별법 제정 화합전기 마련을 / '참회정진' 이 먼저다
- 만남 친주교 광주대교구 노동조합 박준우위원장 "우리는 신앙인이자 노동자입니다"
- 거사열전 '불교적 경영' 실천했던 동명 강석진
- 기획연재 유림의 참여불교
- 국가권력과 종교
- 이런일 저런생각 "사건 전달자 아닌 당사자로 살고 싶다"

"우리는 결코, 침략자 중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국내문자 수성명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운전전하고돌아왔습니다. 방문단원들은 그곳 티베트인들의 미소에 담긴, 독립을 향한 끝없는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연민의 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제침략시절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빌판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지배에 들어간지 42년이 흐른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식민지입니다. 티베트 본토는 중국당국의 통치권력에 의해 상당부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다람살라 방명정부의 티베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본토에 끊임없이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교로 민족정통을 이어 가는, 우리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언어도 유사한 식민지의 나라 티베트,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니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불교전통과 조국사랑의 지혜를 말입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중구소수출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정기구독신청 02-725-6231